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 지원 후 삶의 질 변화*

임 세 희** · 김 희 주***

요약

본 연구는 주거 개보수 또는 보증금 지원으로 주거빈곤 상황이 개선된 아동가구의 경험을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거가 개선되기 이전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주거환경'이었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위협이 되는 집'이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아동의 부모들은 주민센터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를 만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주거개선 후 아동들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토피와 같은 질병들이 사라지는 등 신체적 건강이 좋아졌다. 주거 개선 이전 우울하거나 폭력적이었던 아동의 심리상태가 편안하고 안정되면서 자녀의 성장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족들의 짜증과 갈등이 줄어들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향상되었고, 아동들은 친구를 자신의 집을 초대하는 등 교우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거 환경의 향상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빈곤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해소되지 않은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들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주거빈곤아동가구의 삶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끝으로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주거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주요어: 주거빈곤, 주거개선, 주거복지, 아동주거빈곤

* 본 논문은 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구'(임세희·최은영·김희주·김기태·김동민·김승환)의 5장 '주거빈곤개선의 효과'를 학술지 발표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5장 '주거빈곤 개선의 효과'는 다른 장과 구분되는 연구주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 제 1저자,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shlim32@hanmail.net)

*** 교신저자,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pennee@naver.com)

1. 서론

본 연구는 주거지원을 받은 후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밝힘으로써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 모델에 따르면 미시체계(microsystem)는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때 주거가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Clair, 2019). 인간은 주거를 중심으로 생활을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주거는 인간의 제 1차적 방어선으로 은신과 피난처로 기능하며(San Francisc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2004), 주거 안에서 사생활을 보장받고, 신체적·정신적·인지적 발달을 도모하며,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경험한다. 주거는 자신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드러내게 하며, 주거는 지역 사회내 관계 형성의 기반이 된다. 이런 이유로 적절한 주거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 향유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주거권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아동은 발달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주거권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과 이로 인한 부정적인 발달은 아동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UN-habitat(2015)는 “아동의 경우 적절한 주거의 부재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 전체적인 인권의 향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거빈곤으로 고통 받는 아동의 경우 특별한 집단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동 주거권에 대한 국제적 규약은 오래되어 1959년 선언된 아동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원칙4는 “아동은 적절한 영양, 주거, 오락 및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1989년에 체결된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27(2)은 “부모와 아동에게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정적 역량의 범위 안에서, 아동발달에 필요한 삶의 조건을 확보할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27(3)은 “정부는 부모나 아동의 보호자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절한 수단들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하면 특히 영양, 의복과 주거에 대해 물질적인 지원과 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주거복지의 우선적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호주와 스웨덴은 주거급여(Housing Benefit: HB), 주택수당 혹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보조에 있어 부양아동유무 혹은 부양아동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아동가구의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조소영, 2012; 정용문, 2012; 최연혁 2012). 또 공공임대주택 배정에 우선권을 주며(조소영, 2012), 주거급여 제공시 아동가구의 경우 보다 넓은 주택을 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최연혁,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주거기준미달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규모가 2016년

현재 국토교통부 기준으로는 4.7%, 최저주거기준의 적극적 기준에 따르면 12.1%에 이른다(임세희 외, 2018),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에 있어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적극적 지원은 부족하다. 그러나 최근 즉, 2019년 4월에 주거기본법 제 3조의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우선지원의 대상에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 이외에 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상 제 3조 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포함시키고, 지원대상아동에 대하여 별도의 주거실태조사(제 20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아동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국가 지원이 제도화 되어가고 있으나, 주거개선이 과연 아동가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양적인 조사로 진행하여 왔다. 주거빈곤은 아동의 학업성취(Evans et al, 2000; 이봉주·임세희, 2008; 임세희·이봉주, 2009; Evans et al, 2009; 임세희, 2010), 학교폭력피해경험(이봉주·임세희, 2008) 내재화문제(임세희, 2010), 청소년문제행동(김진희·이상록, 2012), 학교적응(신다운, 2012), 주관적 행복감(임세희·김선숙, 2016)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소득 등 관련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독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주거가 개선이 되면 아동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주거 개선으로 아동의 생활세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때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책이나 서비스 지원으로 인해 특정 대상의 삶의 변화과정과 변화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질적연구를 통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개선이 아동가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아동가구 심층면접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아동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아동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다.

2. 이론적 배경

1)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정의와 규모

주거권이 보장된 상태란 주거의 구조적·물리적 특성이 적절하여 건강한 발달이 가능하며, 주거비 지출이 과중하지 않아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비주거부담지출(예, 의료비, 교육비, 식료품비 등)을 할 수 있으며, 퇴거 위험이나 빈번한 이동 없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가 이루어진 상태라 할 수 있다(임세희, 2018).

이러한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할 때 주거빈곤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구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으면서 주거빈곤의 상태에 처한 경우 아동주거빈곤가구라고 할 수 있다.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규모는 주거빈곤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임세희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 결과 주거의 구조적·물리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동가구의 규모가 국토교통부 기준으로는 2016년 현재 전체가구의 5.4%, 아동가구는 4.7%이었다.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의 적용방식과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전체가구의 11.7%, 아동가구의 12.1%가 최저주거기준미달 상황에 있었다.¹⁾ 반면 주거비과부담의 경우 아동가구가 전체가구보다 적어 소득대비 주거비 30% 이상, 주거비 제외 잔여소득 최저생계비 미만에 있어 전체가구는 각각 14.4%와 22.0%인 반면에 아동가구는 4.6%와 8.5%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과부담의 중복빈곤을 경험하는 극빈곤층도 최저주거기준의 적극적 기준과 주거비 제외 잔여소득 최저생계비 미만 기준으로 전체가구는 4.1%, 아동가구는 3.0%로 적지 않은 규모였다.

2)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주거빈곤은 아동의 학업성취(Evans et al, 2001; 이봉주·임세희, 2008; 임세희·이봉주, 2009; Evans et al, 2009; 임세희, 2010), 사고발생 위험(Reynolds & Robinson, 2005; Harker,

1) 주거기본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주거기준이 있지만, 기준의 활용정도에 따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에 차이가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방수 기준에 있어 가구원의 관계를 고려한 침실분리원칙은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수만 적용하고 있으며, 방을 정의할 때 방+거실+주방을 모두 방으로 측정하고 있다. 또 필수설비미달기준에 적시된 상하수도는 측정에서 제외하고 화장실과 부엌, 목욕실의 존재여부만을 측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성능환경기준은 측정의 모호성을 이유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 또 6인 이하 가구까지만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임세희 외(2018)에 따르면 가구원수 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관계까지 고려하고, 거실과 주방은 제외하고 방만 방으로 정의하여 2016년 주거실태조사로 분석하면 전체 가구 중 방수미달가구의 비율은 4.3%로 나타난다. 하지만 방+거실+주방을 모두 방으로 하면 가구원간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0.9%로 줄어든다. 여기에 앞서 서술한대로 가구원 수만을 고려한다면 방수기준미달은 더욱 줄어들어 국토교통부 발표와 마찬가지로 0.5%에 불과하게 된다. 또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 역시 필수설비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의 발표인 2.6%와 달리 필수설비미달가구의 비율은 3.3%로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과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의 경우 채광, 난방, 환기, 방습에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 주택 유형을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로 분류하면 전체 가구의 3.2%에 이르게 된다.

2006), 질병발생 확률(Baker et al, 2000), 만성스트레스(Masten et al, 1993), 수면활동(Conley, 2001; Reynolds & Robinson, 2005),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관계(Booth & Edwards, 1976; Evans et al., 1998; Evans et al., 2000), 학교폭력피해경험(이봉주·임세희, 2008), 내재화문제(임세희, 2010), 청소년문제행동(김진희·이상록, 2012), 학교적응(신다은, 2012), 주관적 행복감(임세희·김선숙, 2016), 신체학대경험(강지영, 2017)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세희 외(2018)는 주거빈곤이 아동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로 밝히고 있다. 복지패널을 활용한 양적인 연구에 따르면 과밀상태는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고등학생의 주택면적당 광열수도비, 아동비만지수, 가족갈등, TV와 인터넷 사용시간, 방입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반면에 가구원 수 당 식료품비, 아동사교육비, 부모의 교육참여,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 참여활동은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실 없음 등의 필수설비미달의 경우 아동의 성추행 피해경험, 즉 ‘지난 1년 동안 내가 싫은데도 다른 사람이 나의 몸을 만진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싫은데도 다른 사람이 억지로 옷을 벗게 하여 내 몸을 보려고 한 적이 있다’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주거비과부담은 아동의 이사와 전학횟수를 증가시키고, 아동의 주의집중, 주관적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또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가구를 혹서기와 혹한기에 걸쳐 심층면접한 결과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집, 기름 짜듯이 어깨를 맞대고 자야하는 집, 공부할 책상을 놓을 공간은 고사하고, 빨래 건조대 밑에서 자야하는 집, 벌레와 쥐가 있는 집, 용변이 마렵다고 씻고 싶다고 바로 화장실을 가거나 목욕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노려야 하는 집, 식사준비도 환기도 어려운 집, 비가 오면 누전이 될까, 태풍이 불면 벽이 무너질까 걱정하며 있어야 하는 집, 바깥에 한 번 나가려면 한참을 걸어 나가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놀거나 배울 공간이 없는 집, 혹여 친구들이 내 집이 이렇다는 것을 알까 두려운 집에서 아이들은 고통 받고 무기력해지며, 한편으로 탈출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주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우리나라의 주거기본법(2015년 제정)은 제 2조 주거권에서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거기본법에 최저주거기준(주거기본법, 제 17조)을 공시하고,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

급(제 11조)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 보조(제 15조)를 규정하고 있다. 또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에 주택공급 및 정비사업 등의 우선지원(제 18조)을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적절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법령화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축은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주거급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주택은 수요와 가격이 아니라 욕구에 따라 할당되며, 욕구의 개념은 정치적 혹은 행정적으로 정의되고 해석된다(Haffner et al, 2009)는 점에서 시장 원리에 의해 할당되는 민간주택(시장주택)과 구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대비 2014년 기준으로 약 5%(임세희, 2015, p15)로 2008년 기준 호주 4.8%, 일본 5.8%와 유사하며, 네덜란드 32%, 덴마크 19%, 스웨덴 17%(진미윤, 2011)보다는 매우 낮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상이하며, 주택 면적은 85㎡ 이하로 한정되어 있고, 임대료는 시장임대의 30%에서 90%로 설정하고, 상당기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임대보다 주거비부담이 덜하고, 주거 안정성이 높으며, 최저주거기준미달일 가능성도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성과는 가구 소득과 가구의 교육수준 등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면 더욱 일관되게 나타난다(임세희, 2018).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서 아동주거빈곤가구를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의 자녀수에 따른 배점부여, 3자녀 이상의 경우 특별 우선대상이 되고 있으며, 공공임대(5년/10년/분납)의 경우 역시 3자녀 이상 특별 우선대상이 되고 있다. 또 전세임대의 경우 소년소녀가정과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고 있다(마이홈포털, 2019년 5월 1일 검색). 그런데 이러한 입주자격은 다른 인구학적 집단과 병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아동 가구라고 하여 다른 인구학적 집단보다 우선적인 배려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나마 아동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우선대상이 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3자녀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대상의 자격을 부여하는 국민임대와 장기전세는 통상 60㎡이하로 방 2개 짜리의 주거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3자녀 이상 가구라면 가구원 수가 대부분 5인 이상인 경우로 침실분리라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방의 수가 3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3자녀 이상으로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과밀상황을 겪을 것을 우려하여 60㎡이하의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의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2019년 7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면서 주거취약계층에 기존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와 가정폭력 피해자, 미혼모 이외에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였다. 이때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로 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2019년 현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주거급여와 자가가구 주거급여로 나뉘는데,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설정한 후, 임차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과 같거나 적으면 기준 임대료(혹은 실제임대료가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경우 실제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임대료에는 보증금과 월차임이 합하여 산정이 되는데, 보증금은 연 4%로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반면 임차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가 해당한다. 2019년 현재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4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6.5만원이다.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구조안전 3개 항목(지붕 누수 등), 설비상태 12개 항목(부엌, 욕실 등), 마감상태 4개 항목(벽, 천장 등)의 총 19개 항목으로 평가한 후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구분되며 보수정도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주기에 차이가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만 65세 이상)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지원 범위 내에서 설치해 주고 있다.

이상의 주거급여 역시 아동가구를 배려하고 있지 않다. 아동가구는 아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교육상의 이유로 비아동가구에 비해 지역사회 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하려 한다. 이런 이유로 주거급여가 보다 높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2019년 시흥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급여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아동가구의 주거상향을 유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한국도시연구소, 2019).

4) 주거개선의 효과

주거빈곤을 겪고 있던 아동가구의 주거지원 후 삶에 대한 국내의 학술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아동주거빈곤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미진하여 정책적·학술적 관심이 부족하였던 것이 한 가지 이유였으며, 또 다른 이유는 관련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물론 주거지원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왔다. 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 만족도(권치홍·김주영, 2012; 강희경·유병선, 2014; 최웅선·이용모, 2015), 차별경험(하성규·서종녀, 2006), 우울(임세희, 2013)과 주거비 부담 수준의 변화(최은희·이종권·김수진, 2011), 민간임

대주택과의 성과 차이(임세희, 2018)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성과에 관한 연구로 주거개선 이후 주거빈곤 가구의 삶의 변화를 개인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니다.

해외에서도 주거빈곤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 비해 주거개선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친 성과(outcome)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Curl et al., 2015). 게다가 결과가 일관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대해 Thomson et al.(2013)은 주거개선의 편차가 상당하여, 다양한 주거개입 중 특정 개입의 효과를 분리해내기 어렵고, 개입집단을 선정할 때 난선택화하기 어려우며, 통제집단도 일부가 개입을 받는 경우 실험의 오염(contamin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그 이유로 지적한다. 게다가 개입을 받은 집단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유의도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단기적인 추적에 그치고, 기초선을 수집하지 않고, 잠재적인 혜택을 알기 어려운 점도 주거개선의 효과 연구의 약점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는 주거개선의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Egan et al.(2013)과 Curl et al.(2015)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거 개선이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거개선 가구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도한 Egan et al.(2015)에 따르면 습기가 차고 추운 집,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집에서 습기가 없고 난방비가 비싸지 않은 집으로 이사한 경우 천식, 신경통, 습진 등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공간이 부족하다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가족관계가 좋아지고 정신건강이 개선되었다. 외관상 부끄러웠던 집에서 자랑할 수 있는 집으로 이사한 후 정신건강이 좋아지고, 방문객이 많아지고 고립도가 낮아졌다. 열악한 주방이 개선되자, 더 자주 집에서 요리를 하고 먹는 음식이 개선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물론 만성적인 질환은 여전히 지속되거나 나빠지기도 하고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Egan et al.(2015)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주거 이동 전에 삶과 건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상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주거, 여전히 습기가 있거나 비슷한 규모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거빈곤에서 벗어난 아동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주거빈곤 개선이 아동

에게 미치는 효과를 통합적으로 알고자 하였다. 주거환경 개선이 아동과 가족에게 미치는 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주거빈곤 아동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개선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개선 전과 후의 상황들을 비교하고 변화된 상황 속에서 아동의 생활과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질적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제 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제 분석은 자료를 읽으면서 나타나는 주제들을 발견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심개념들을 도출하는 질적연구의 가장 일반적인 분석방법이다(Cresswell, 1998;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2005 재인용). 이러한 주제분석의 절차에 따라 면접을 통해 수집된 녹취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본 연구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을 찾아내고, 이후 비슷한 의미를 가진 주제들을 범주화하고, 그 범주에 대해 해석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방법

질적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선택하는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추출한다. 본 연구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했던 아동과 가족들이 외부의 지원으로 주거환경이 변화된 후 삶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는 C재단의 주거지원으로 주거개선을 경험한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C재단은 지역에서 의뢰받은 주거빈곤아동가구가 전세임대주택²⁾으로 이사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혹은 주거의 물리적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C재단의 보증금 지원을 받은 경기도의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경우 공공에서 지원하는 LH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되어 수도권외의 경우 최대 9천만원의 전세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입주에 필요한 전세금의 약 5%정도 되는 보증금(수도권 기준 약 450만원)을 마련할 수 없어서 이사를 할 수 없는 가구였다. C재단의 최대 500만원의 지원은 주거빈곤아동가구가 약 9천만원 정도의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으로 자가가구이거나 이미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LH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얻지 못한다. 자가이거나 이미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곰팡이, 누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2)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전용 85㎡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외의 경우 최대 9천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 기타지역은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은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이미 지불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이내 해당액을 지불한다. 최소 2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의 특성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주거개선 전 즉, 주거빈곤 상황의 구체적인 양상, 아동 발달과 가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례기록과 intake 등 C재단 기관 내 서류내용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주거지원의 큰 축인 보증금 지원과 주거 개보수 지원 가구로 나누어 사례를 수집하였다. 각 사례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에 고루 분포하도록 하였다. C재단 경기도 사업본부의 전체 주거지원 가구 중 보증금 지원 가구에 비해 개보수 지원 가구가 절대적으로 적어 최종 표본에 보증금 지원 가구 9가구와 개보수 지원 가구 4가구가 선정되었다. 과밀과 필수설비미달등 주거빈곤의 하위유형과 컨테이너 등 전형적인 주거빈곤 유형을 고려하면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아동 연령의 경우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선정하되 18세 이상이라도 취학 중인 경우 참여자로 포함하였다. 그 밖에 가능한 성별, 연령별 분포를 고르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부모(혹은 조부모)와 아동 모두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아동은 부모 동의하에서 개별면접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참여자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13사례의 연구참여자(경기북부 7사례, 경기남부 6사례)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면접 과정에서 아동의 사생활 노출이나 주거 빈곤과 관련된 개인의 부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해야 하는 등 연구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 과정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C재단의 연구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방문목적과 일시, 가정방문에 대한 참여자 동의 등에 대해 참여자에게 일차적으로 전달하였고, 첫 면접 시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참여의 자발성 보장과 개인 정보 활용 범위, 참여자의 비밀보장과 익명성 보장, 지금 받고 있는 혹은 앞으로 받을 공적·사적 지원과 본 연구가 무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개시 전 서울사이버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³⁾.

3) 연구참여자 특성

본 연구의 면접 기간은 2018년 7-8월까지 총 2개월이었고, 각 가정마다 1회씩 방문하였으며, 면접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면접과정은 녹음이 되었다. 연구면접에 참여한 13가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인 정보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3) 본 연구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번호는 AN02-20180306-HR-001-01이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참여자 ID	연령	학력	동거 가족	지역	주거유형	주거지원	
가족 A	조모	77세	-	조모, 자녀 1명	남양주	일반전세	보증금 지원
	아동	16세	중3				
가족 B	모	51세	고등중퇴	모, 자녀 1명	파주	전세임대 빌라	보증금 지원
	아동	12세	초5				
가족 C	모	48세	고졸	모, 자녀 3명	수원	일반월세	보증금 지원
	아동	16세	고1				
가족 D	모	46세	대졸	부모, 자녀 4명, 친정아버지	부천	자가	개보수 지원
	아동	10세	초3				
가족 E	모	39세	고졸	모, 자녀 1명	광명	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아동	13세	초6				
가족 F	이모	57세	고등중퇴	이모, 사촌 3명, 아동	성남	LH 전세임대	개보수 지원
	아동	18세	고3				
가족 G	부	56세	초졸	부, 자녀 1명	포천	LH 매입임대	보증금 지원
	아동	13세	초6				
가족 H	모	56세	고졸	모, 자녀 1명	포천	LH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아동	19세	고졸				
가족 I	조모	61세	중졸	조부모, 손녀 1명	안양	자가	개보수 지원
	아동	7세	초1				
가족 J	모	39세	고졸	부모, 자녀 1명	하남	LH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아동	15세	중2				
가족 K	조모	48세	중학 중퇴	조부모, 이모2명, 아동	김포	LH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아동	6세	어린이집				
가족 L	부	47세	중졸	부모, 자녀 6명	안성	무료임대	개보수 지원
	아동	13세	중1				
가족 M	부	39세	고졸	부모, 자녀 1명	성남	일반월세	보증금 지원
	아동	7세	어린이집				

4) 연구의 엄격성 고려

연구진은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분석을 마친 후 아동과 주거 빈곤 분야의 전문가 4인으로부터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또한 연구의 중립성을 준수하기 위해 자료 수집 이전부터 공동 연구진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선 이해와 편견들을 확인하면서 판단중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자 개인의 관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연구진들이 모여 자료를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자료의 다각화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아동주거빈곤가구의 빈곤경험들을 탐색하였고, 분석과정에서는 연구진들이 모여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자료의 다각화를 시도하였다.

4. 연구결과

1) 대주제

C 재단을 통해 주거 개보수 또는 보증금 지원을 받아 주거 환경이 변화된 참여자들의 경험을 개선 이전상황과 주거개선과정, 개선 이후의 변화로 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거개선으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성장 및 발달,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 생활모습 및 외부환경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대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2] 주거빈곤개선 사례의 변화

대주제	소주제	개념
개선이전 상황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주거환경	거의 무너져 가는 집, 보일러가 터져 젖은 집에서 스티로폼을 바닥에 깔고 생활함, 물이 새는 지하방, 집이 좁아 밥을 먹을 때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음, 자다가 가구에 머리를 부딪침, 방음이 안 되는 집, 집안 환기가 안 되어서 요리를 하지 않았음, 여름에는 더위로, 겨울에는 추위로 집에서 생활이 어려웠음, 방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 외부에 있었음, 주방에서 샤워를 함,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밤에는 무서웠음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위협되는 집	습하고 어두운 반지하에서 생활, 집이 습해서 옷과 가방에 곰팡이가 낄, 쥐가 전선을 갉아 먹어 위험한 상황에서 생활함, 연탄보일러에 질식되기도 함, 거의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았음, 주방 위생이 매우 나빴음, 곰팡이 균에 쫓아 세균성 질환에 걸림, 벌레, 뱀이 들어 올까봐 항상 문을 닫고 생활함, 밤에는 어둡아서 다니기 위험함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 사회적 어려움	주거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했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가족들이 스트레스와 짜증이 많았음, 집의 방음이 안 되어서 옆집과 충돌이 많았음, 집에서는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되지 않는 환경에 집 치우는 것을 포기하게 됨
	주거빈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제적 어려움	지적 장애 판정을 받은 자녀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수급자가 됨, 수급비로 생활비, 공과금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바듯한 생활비로 한 달의 반은 아무것도 안사고 버팀, 생활비 여유가 없어 고기 등을 잘 해주지 못함, 주거생활의 어려움으로 자녀교육 지원이 불가능함, 수급비를 아껴 오랜 빛을 갚음, 임대 아파트에 2번이나 당첨되었으나 보증금이 없어 기회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음
주거개선 과정	절망스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음	주민센터를 통해 C재단과 연결됨, 희망이 없는 일상 속에서 정부와 복지재단에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함, C재단의 보증금 지원을 통해 임대아파트로 이주, C재단에서 도배, 수납장, 싱크대 등 주거 개보수 지원을 받음
	지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함	주거개선 공사과정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경험함, 개보수 지원을 받았으나 주인으로부터 강제 이사를 당함
주거개선 변화	눈에 띄게 향상된 주거환경	집안에 화장실이 있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됨, 더 깨끗한 집으로 이주, 방과 거실, 주방이 따로 있는 집으로 이사, 집에 있는 게 편해짐,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주방이 편리해짐, 개보수 후 천장 누수문제가 해결됨, 환풍이 잘 돼서 집이 시원해짐, 싱크대 교체 후 주방사용이 좋아짐, 습기와 곰팡이가 줄어들음, 아파트의 편리한 구조에 만족함
	나만의 공간이 생김	내 방이 생긴 후 미래 꿈을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김, 집안 공간이 여유로워

	지면서 생산적인 생각도 많아짐, 넓어진 방과 책상이 생겨 공부도 훨씬 잘 됨, 처음으로 내 방이 생김, 이성가족과 따로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김	
신체적 건강이 좋아짐	아토피가 개선됨, 세균성 피부질환 증상이 없어짐, 몸이 건강해짐, 잠을 잘 잠.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됨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활기가 생김, 캄캄한 터널에 갇혀 있다 높은 곳으로 옮겨 온 듯한, 집의 불편한 부분을 고쳐서 마음이 편해짐, 집에 들어와도 걱정할 일이 없음, 자녀와 함께 독립 후 마음이 편해짐, 주거관련 지출은 늘었으나 마음은 행복함, 이전 집을 떠나면서 고생했던 짐을 놓고 온 것 같은 출가분함	
자녀의 긍정적 성장이 이루어짐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자녀가 자신감이 생김, 자녀에게 집이 소중한 자리가 됨, 아이의 성격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짐, 자녀가 훨씬 자유로워지고 아이다워짐, 손녀가 자해를 그만두고 밝아짐, 불편함이 해소되면서 짜증 많던 아이가 보통 아이로 돌아감, 이사 후 삶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음, 도움을 받고 복지에 관심이 생김	
가족관계가 향상됨	부모의 짜증이 줄어 갈등도 줄어들, 부모의 짜증이 줄어들면서 자녀가 집중력이 생김, 자녀의 폭력적인 성향도 줄어들, 가족이 같이 이야기 하는 시간이 많아짐, 집안 일도 자녀가 잘 도와줌,	
자신 있는 교우관계를 형성함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귄 수 있게 됨, 친구들이 자주 놀러옴,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관계도 좋아짐, 사람들을 마음껏 초대할 수 있음,	
주거생활에 여유가 생김	이사 후 집에서 요리하는 일이 늘어남, 내 집이 생겼다는 마음에 청소도 잘함, 자녀의 정리정돈 습관이 좋아짐, 귀가시간이 빨라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주거관련 지출이 감소됨, 차상위를 위한 전기세, 도시가스 감면을 받음	
외부환경 변화	밤 늦게 다녀도 동네가 밝아 무섭지 않음, 주변에 유흥가가 없어지고 주거지역이 가까워짐, 교통이 편해져서 다양한 외부활동이 가능해짐, 적당한 시골 분위기가 자녀 키우기에 좋음, 학교와 가까워짐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빈곤과 삶의 문제들	이사 후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가족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 낡고 노후 된 집이라 개보수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주거수리 후 변화), 여전히 벌레들이 많음, 주변 공원이 위험해서 밤에는 외출을 자제함, 아이가 놀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집에서 무료하게 보냄,
	정부의 주거지원에 대한 바람	LH 주거지원 대상자가 되었으나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이주가 어려웠던 경험을 떠올림, C재단이 보증금을 지원해주었으나 이사비용은 지원해주지 않음, 저소득가족을 위한 이사비용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음.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함, 탈수급을 앞둔 저소득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함
	이주하고 싶은 집의 모습	(LH 주거지원의 자격과 기한이 제한 되어 있어) 퇴거 위험 없는 쾌적하고 안정된 집으로 이주하고 싶음, (이사 하였으나 여전히 좁은 경우) 나만의 방을 갖고 싶음, (전세보증금의 연1~2%의 이자인) 월세를 안 내는 집으로 가기 원함, (어린 아동의 경우)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음

2) 주제별 내용

(1) 개선이전 상황

①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주거환경

주거 지원을 받기 이전 참여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주거 상황은 말 그대로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다. 집의 모양과 구조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집에서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비가 들어치고, 제대로 된 부엌이나 욕실도 없이 한 장소에서 요리와 목욕을 같이 하는, 집의

기본적인 기능이 상실된 주거환경에서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집안 시설물이 고장이 났지만 수리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고장 난 채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한 사람이 들어가도 비좁은 화장실, 심지어 외부에 있어 이용이 무서운 화장실, 잠을 자다가 여기저기 머리를 부딪칠 만큼 좁은 집은 아동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집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좁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집에서는 환기도 제대로 안 돼서 요리를 할 때마다 집안에 미쳐 빠져 나가지 못한 연기로 가득차서 아동들은 차라리 제대로 요리된 음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다. 방음이 안 되어 작은 이야기도 나누기 힘들고, 여름의 무서운 더위를 그대로 느끼고 겨울의 가혹한 추위를 견디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내고 있었다.

(집 한쪽이) 무너졌어요. 비가 오면 다 들이치고. 옛날에는 나무 쌓아 놓는 곳이 부엌이었어요. 입식 부엌이 아니라 그냥 싱크대만 놓고 음식하고 씻고 그랬죠. 방 하나는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지붕사이로 물을 쏘서 흠이 다 내려앉은 상태라 지붕만 고쳤거든요. 집 상태가 많이 안 좋았죠 (참여가족 L-부).

이 방에서만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엔 이쪽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엔 이쪽도 스티로폼을 다 깔았었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면 (물이) 더 많이 나와서 씻을 때만 온수를 틀고 나오면 바로 보일러 끄고. 애들은 그때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해요(참여가족 D-모).

전에 그 지하 방에 살 때는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샀었어요.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 비가 와서 (집안에) 물이 있으면 물 퍼내고... (참여가족 C-아동).

(집이 좁아서) 밥 먹는 것도 불편했어요. 상을 피면 제가 안에 앉아있는데 아빠는 밖에 앉아 있고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었어요. 집이 좁으니까 자다가 여기저기 머리도 박고 그랬어요 (참여가족 G-아동).

화장실에서 서서 샤워를 하면 화장실 문이 다 안 닫혔거든요. 그래서 방 쪽으로 물이 다 튀고. 앉아서하면 물 떨어지는 게 낮으니까 앉아서 씻고 그랬죠(참여가족 H-아동).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까 문에 뭐가 붙어있을지 모르잖아요. 시골의 나무로 된 그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사슴벌레랑 굽등이가 있었어요. 살충제를 뿌려도 계속 나오잖아요... 밤에 가려면 무서웠죠. 샤워는 주방 겸 같이 썼는데 샤워시설이 열악했죠 (참여가족 A-아동).

전에 집은 환기가 안 되니까 요리를 하면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집안에 너무 짝 차는 거예요. 단 시간 안에. 그래서 엄마한테 저녁에는 밥 안 먹는다고 했어요... 엄마는 돈 쓰는 것 싫은데 요리를 할 수 없으니까 (도시락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왔어요. 근데 먹을 때도 맛이 그냥 그랬어요 (참여가족 C-아동).

이전 집은 일반 사무실을 가정집으로 개조한 거예요. 그래서 날로 지었다고 해야 하나. 우리 집도 사무실 하나를 벽으로 막아서 방음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한테 얘기하면 옆집에서 새벽부터 소리 때문에 잠 하나도 못 잤다고 문 막 두드리고 그랬어요 (참여가족 B-모).

여름엔 너무 더웠죠. 2016, 2017년 여름이 제일 더워가지고 너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겨울 되면 너무 추웠어요. 문에 얼음이 맺힐 정도였어요. 잘 때 진짜 추울 때는 패딩 입었었어요. 씻는 것도 불편하고 (머리도) 잘 말려지지도 않고 너무 추웠어요 (참여가족 H-아동).

②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위협이 되는 집

심각한 주거빈곤에 놓였던 아동들에게 집은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환경이었다. 낡고 오래된 집은 산짐승들의 공격으로 일부분이 무너져 내려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였고, 집안을 휘젓는 쥐의 출몰은 가족의 위생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기 전선을 수시로 갹아 먹어 합선과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방충망이 없는 창문과 문으로 온갖 벌레와 뱀이 들어와 한여름에도 문을 닫고 생활해야 했다.

안전의 문제와 함께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생의 문제도 심각했었다. 시골지역의 오래된 가옥에서 거주했던 아동들은 방이나 부엌, 욕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주변에서 벌레들이 날아들어 집안 위생상태가 심각했다. 그래서 아동들은 장염이나 식중독과 같은 세균성 질병에 자주 걸렸다. 무엇보다 아동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주거관련 문제는 어둡고 습한 집을 가득 메운 곰팡이의 습격이었다. 닭아도 없어지지 않는 곰팡이는 아동들의 옷과 가방까지도 점령하였고 심지어는 아동 몸에도 침투하여, 곰팡이 균에 감염된 아동은 심각한 피부질환에 걸려 참기 어려운 가려움과 진물로 고통을 받았다.

제일 문제였던 게 화장실도 도둑 고양이하고 샅하고 막 싸워가지고 다 무너지고, 비도 막 세고 그랬어요. 방 하나도 족제비랑 샅하고 고양이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난투전을 해가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그래서 애들도 위험했죠 (참여가족 L-부).

아예 냉/난방이 안되고 쥐가 나오다 보면 전선을 갹아먹어요... 쥐가 전선을 거의 다 갹아먹어가 지고 완전 구리가 보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연탄을 떼면 연탄가스가 나오는데, 잘못하다가 할

머니가 마신적도 있고 저도 있죠.(참여가족 A-아동).

(뱀이 들어온 경험을 한 후) 한여름에도 개구리든 뭐든 들어올까 봐 걱정이 돼서 문을 방충망뿐만 아니라 일반문도 닫았어요. 그러니까 환기도 안 되고 집은 더운 거죠 (참여가족 H-모).

여기(부엌) 입구가 봉해져있지 않고 개방형으로 되어 있으니 파리랑 귀뚜라미, 바퀴벌레가 엄청 들어왔죠. 여름에는 국을 끓여 놓으면 파리가 다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고... 애들이 장염에 많이 걸렸었어요 (참여가족 L-부).

곰팡이는 일단 백성균이라고 하죠. 몸에 옮아서 병 생기는거. 2달 전에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사람을 만지면 옮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가렵잖아요. 참 불편하고. (이제) 치료가 되긴 하는데 이걸 빨리 잡았으면 단기간에 치료가 가능한데. 제가 1년 넘게 오래 놔둬서 치료가 좀 꾸준히 오래되어야 해요. 곰팡이균 증독이다 보니까. 피부에 안 드러나면 다행인데 피부에 드러나거든요 (참여가족 A-아동).

일단 거기는 머리가 진짜 아팠어요. 방에만 있어도 냄새 때문에. 환기도 안 되고, 햇볕도 안 들어오고. 오죽하면 옷이 다 망가져요. 몇 개월만 지나도 옷에서 냄새가 가득이고, 옷도 다 곰팡이가 썩어버리고,,, 집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애가 기관지염이랑 피부염에 자주 걸렸어요. 아토피는 없는데 곰팡이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막 긁고 그랬어요 (참여가족 M-부).

③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 사회적 어려움

주거빈곤은 아동과 가족의 물질적 결핍이나 안전과 위생의 위협과 같은 문제를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우울, 분노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도 일으켰다. 곰팡이 가득한 집 또는 좁고 낡은 열악한 상태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과 좌절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짜증과 분노의 감정들이 쌓이면서 힘이 없는 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주거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과 가족의 사회적 관계나 학습 욕구, 청결한 습관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악화시키거나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다른 집으로는 갈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우울증도 왔었어요. 진짜 아파트 보면서 '저기서 딱 뛰어내리면 한방이면 가는데'라고 했었던 적도 많고. 많이 힘들었어요 (참여가족 M-부).

공장식당 방 한 칸 마련한 곳에서 애들 셋이 다 있었어요. 근데 큰 애가 둘째랑 막내를 무지 때렸

어요. 자기도 짜증날 거 아니에요?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막내는 그런 걸 다 견디면서 했는데 둘째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형이 맨날 때리고 그러니까 (참여가족 H-모).

여기 벽이 붙어 있는 옆집에 부부가 사는데 시끄러워서 기침하는 소리까지 옛날집이니까 다 들려. 그래서 애는 공부도 안 되니까 편의점에 나가서 한, 두시간씩 앉아 있다 들어오고, 너무 짜증이 날 때는 조용히 해 달라고 그러면 또 몇 시간씩 욕을 해요. 너무 미치겠어서 경찰에 가서 도와 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참여가족 H-모).

집에서는 거의 못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야간학습 같은 거 신청해서 학교에 남거나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끝이었죠. 학교 끝나고 다른 데서는 할 수 없고, 집에서는 공부를 못 하고 그랬어요. (참여가족 H-아동).

옷을 정리하고 치위도 다시 물에 젖고 이게 반복되니까 애들이 점점 치우는 걸 포기하고 그런 게 습관으로 변하는 걸 보니까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물에) 다 젖어서 다시 빨아야 되고, 종이도 다 젖었고 이러니까 치위도 소용이 없고 이게 아이들한테 점점 치우는 걸 그만두는 핑계가 다 되잖아요. (참여가족 D-모).

④ 주거빈곤을 가중시키는 경제적 어려움

주거빈곤은 생활의 다양한 영역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들과 맞물려 아동과 가족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일을 하며 자녀를 부양하던 한 참여가족 어머니는 자녀가 지적 장애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고 수급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생활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참여가족들은 기초생활수급비가 주 소득이었기 때문에 한정된 소득 안에서 모든 생활비와 공과금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성장기 자녀에게 영양가 높은 고기 반찬 한 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자녀교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빠듯한 생활비로 한 달 중 15일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버티면서, 모은 돈으로 빚을 갚기도 하였다.

수급비를 받으면 15일은 필요한 게 있잖아요? 마트 가서 음식 몇 개 사고, 나머지 15일은 거의 뭐 안사고 라면이나 끓여 먹는 걸로 버티고 (참여가족 H-모).

애를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한 번 하고 싶어도 외식하는 지금 이 순간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달까지 수급비를 맞춰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써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한테는 나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참여가족 G-부).

한 보름정도 지나면 저희는 비상사태예요. 생활비 빼고 OO이 반찬이나 그런거 빼고, 전혀 저희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돈 들어오면 공과금 다 내고, 버스카드 충전 다 해놓고, 그리고 OO이한테 들어갈 거 반찬사고 뭐하면 마트만 가도 돈 10만원이 깨지니까... (참여가족 M-부).

제가 4품까지 가르쳤어야 했는데 4품은 태권도비도 조금 올라가고 OO가 대회 같은 것도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참가비가 좀 비싸요. 그래서 3품까지만 하고 제가 끝자고 해서 3품 따고 끝었어요 (참여가족 J-모).

반찬이 없어지는 거죠, 거의. 뭐 국 한 가지에 김치에. 이런 식이죠. ...(기초보장) 급여가 나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쏘죠. 근데 7식구가 치킨을 두 마리 먹어도 (서로 양보 하느라) 남을 때가 있어요.(참여가족 D-모)

(2) 주거개선 과정

① 절망스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음

참여자들은 절박하고 절망스런 상황에서 주민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녀가 다니는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C재단과 연결이 되어 보증금 또는 주거 개보수 지원을 받았다. 주거빈곤 가족이 전세임대 주택이나 아파트처럼 보다 좋은 환경으로 이주를 망설이게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자기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전체 전세금의 약 5%로 수도권의 경우 약 45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서였다. 이들 대신 C재단이 보증금을 지원해 주어 가족들은 어둡고 암울한 집을 탈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사가 가능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집안의 고장이 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시설들을 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보수하여 제일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제가 가진 돈이 없었잖아요. 그 집에선 나와야 되겠는데 부모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OO시청 복지과도 가서 대출해주는 데 없냐 물어도 보고. 수급비를 받으니까 한 달에 10만씩 해서 갚아 나가게 해달라고도 했어요. 거기서 미치겠으니까...OO면사무소 사회복지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 선생님이 C재단을 연결을 해 줘서... (참여가족 H-모).

저희가 처음에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는 도와줄 방법은 없는데 일단은 실사를 한 번 나와 보겠다고 해서 와서 보시곤 스티로폼 밑에 물이 흥건한 거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애들이 있는데 금방 겨울 온다면서 많이 서둘러 주신 거 같아요... 복지사 선생님이 C재단에서 집 고치는 건 도와줄 테니까 고치는 김에 필요한 것들 장만해서 아이들 위해서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가구랑 애들 책상이랑 장만을 했었어요.(참여가족 D-모).

전에 살던 OO시 복지기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기관 복지사 선생님이 임대주택 신청 서류를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차상위라 된다고. 그 말 듣고 넣었어요. 넣고 나서 얘기를 했죠. '나는 당첨 되도 장담 못한다. 우린 보증금도 없고 이사 갈 비용도 없다.' 그러니까 그건 C재단에서 해준다고 해서...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나 죽을 때까지 이 집 아마 못 얻었어 (참여가족 G-부).

②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함

주거 개보수 지원을 받은 가족들 중 일부는 거주와 개보수가 함께 이루어져 자녀들의 생활이 제한되는 경험도 하였고,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예고도 없이 공사 진행자가 집을 방문해 가족들이 당황하기도 하였다. 또한 개보수 이후 일부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참여자는 지원 받았다는 고마움에 공사 업체나 재단에 이야기도 못하고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고장이 난 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가족 중 한 가족은 재단에서 개보수를 지원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여 반 강제적으로 집을 나와야 했고, 새로 구한 집은 이전 집보다 훨씬 작고 열악해서 실망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보수 지원을 받는 동안 애기아빠랑 많이 싸웠어요. 애기아빠도 어떤 면에서는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많이 상하니까. 또 사람들이 공사 때문에 취재하러 온다고 갑자기 연락을 하면 부랴부랴 일하다 말고 와야 되니까...아무 때나 오니까 (지원) 받는 사람 입장에 대해서 조금 배려가 덜하다고... (참여가족 D-모).

싱크대랑 세면대 해주셨고, 박스 수납장하고 신발장 하고 전기레인지하고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배도 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근데 신발장이 이게 보수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문이 푹 떨어진 거예요.(참여가족 I-조모).

전에 집을 C재단에서 벽지랑 장판, 누수공사까지 싹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집 주인이 집을 판다고 나가라고 그런거야. (참여가족 F-모).

(3) 주거지원 이후의 변화

① 눈에 띄게 향상된 주거환경

C 재단에서 주거지원을 받은 가족들의 삶은 주거 지원 이후 눈에 띄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먼저 가족에게 늘 스트레스와 좌절감만 주던 주거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방과 거실, 주방이 따로 있는', '더 넓고 깨끗한 집'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집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언제든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 주방에는 환기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편리해졌고, 환풍이 잘 되어 곰팡이가 잘 보이지 않는 집은 시원하고 쾌적했으며,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는 오랜 만에 집에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주거 개보수 지원을 받은 가정에서는 오랫동안 가족을 괴롭혔던 천장 누수문제가 해결되었고, 고장 난 보일러도 고쳐 더 이상 집안 물건이 물에 젖지 않아도 되었다. 낡고 오래된 싱크대를 교체한 후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다.

겨울에 한 2월 달쯤이니까 예전 집에서는 씻고 나오면 춥고 그랬는데 여기는 추운 게 없어요. 씻고 나오면 따뜻하니까 좋아요 (참여가족 H-아동).

일단은 공간 활용을, 그 때는 작고 좁아서 이려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간 활용이 좋잖아요, 막 다니고. 여기 바닥에서도 4명이 잘 수 있고. 물도 잘 나와요. 불을 낮엔 거의 안 켜도 되요 (참여가족 C-모).

저번에 살던 집은 쥐가 나와서 부시럭 거리고, 쥐똥도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방이 2개이고 거실 겸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러니까 잠자리는 매우 편해요 (참여가족 A-아동).

예전 같으면 집이 습해서 빨래를 말려도 잘 마르지도 않고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널어놓고 말리고 아주 습할 때 아니면 제습기 안 틀어도 마르니까 빨래를 빨리 정리할 수가 있어요 (참여가족 D-모).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싱크대가 너무 오래되니까 손잡이도 부식되고, 밑에도 끼지고 그래서 '아 정말 싱크대가 바꾸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마침 와서 싱크대를 바꿔주시니까 너무 좋고, 지금도 저 싱크대 앞에서 서면 행복해요 (참여가족 I-조모).

② 나만의 공간이 생김

아동들은 처음으로 '내 방'이 생기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고', '넓어진 방에 책상을 놓을 수가 있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자녀들은 집안 공간이 넓고 여유로워지면서 밖에 나가는 것보다 자신의 방에 있는 게 더 좋아졌고, '생산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어' 아동에게 공간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의 경우 주거 공간이 넓어지면서 한방에서 같이 자야 했던 남매는 따로 잘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었고, 자녀들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제 방이 있으니까 맨날 나가고 싶진 않아요. 집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잠자기도 편해서 방이 있으니까 좋죠... 공간이 있으면 좀 생각이 많아진 거 같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요. 진로도 이런 쪽보단 이쪽이 낫겠다 싶고... 방하고 그런 게 생기니까... 솔직히 좀 엄마랑 같이 자기 싫었거든요 (참여가족 H-아동)

저 번 집하고 비교하면 일단은 책상을 제가 일일이 안 펴도 되구요. 방이 많아지니까 각자 방에 불이 켜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을 켜고 싶을 때 (눈치 안 보고) 켜면 되니까 훨씬 편하죠 (참여가족 A-아동).

저번엔 방이 없어서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좋아요 (참여가족 J-아동).

제 방이 생기니까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잘 때도 넓게 잘 수 있죠. 전에는 누나하고 (성별이 다른데) 같은 방에서 자려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방이 생기면서 그런 건 없어요 (참여가족 C-아동).

③ 신체적 건강이 좋아짐

주거환경의 개선은 아동의 신체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아동을 사계절 내내 괴롭혔던 아토피가 개선되고, 집안 가득한 곰팡이에 감염되던 세균성 피부질환에 더 이상 걸리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동은 가려움으로 긁어대며 상처 가득한 몸에서 깨끗하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는 없었는데 그 집에 살면서 계속 긁고, 막 빨강고...이 집에 와서 한 달 정도 지나고부터는 거의 긁지도 않아요(참여가족 M-부).

④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됨

주거환경의 개선은 부모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이 모두 새 집에 만족하게 되어 가족 간에 '활기가' 생겨났다.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어두웠던 집에서 임대아파트로 옮겨 오면서 참여자는 '캄캄한 터널에 갇혀 있다가 높은 곳으로 옮겨 온 듯한' 감정이 들었고, 이전 집을 떠나면서 '고생했던 모든 짐을 놓고 온 것 같은 홀가분함'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집의 불편한 부분들을 모두 수리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지고', '집에 들어와도 걱정할 일이 없어졌다'는 안도감에 심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부모의 심리적 안정은 아동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동 또한 주거 환경이 개선된 집으로 이주하면서 집에 대한 안정감과 편안

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주거관련 비용이 이사 후 좀 더 많이 늘었으나 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마음은 행복'하였다.

정신적인 것이 제일 좋아요. 어차피 몸 아픈 거는 똑같은데 일단 환경 자체가 답답한데 있다가 넓은 데로 오니까 낫죠. 훨씬 편하구요 (참여가족 M-부).

예전에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거 같은...집이 빛도 잘 안 들어왔거든요. 서쪽으로 해 넘어갈 때 빛 조금 들어오고. 캄캄한데 갇혀 있다가 높은 데로 온 것 같아요. 아파트 처음 오고 내려다보는데요, 너무 너무 행복한 거야.(참여가족 H-모).

이사하면서 집안에 활기가 생겼죠. 이사 오니까 좋잖아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면서 활기가 생기니까 그런 면이 좋았죠 (참여가족 C-모).

⑤ 자녀의 긍정적 성장이 이루어짐

주거환경의 개선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더 많은 긍정적 변화를 주었는데, 불편함이 해소되면서 짜증 많고 예민했던 아동의 성격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고', '훨씬 자유로워지고 아이다워'졌다. 주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분노로 자신과 타인에게 폭력적이었던 7살의 어린 아동은 밝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자해를 그만 두었다'. 결과적으로 주거개선을 경험한 아동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집이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며, 이사 후 자신의 '삶이 더 잘 풀리는 것'처럼 느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자아 발달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본인도 도움 받았던 경험 이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취미도 이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릴 때는 사람들이 절 보면 애가 왜 이렇게 풀이 죽었냐, 얼굴이 왜 까맣냐. 그리고 제가 좀 살짝 살기 싫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하나하나씩 바뀐 거예요. '오 괜찮네. 나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면서 점점 꿈도 커지고 자신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자랑도 좀 할 수 있고 놀러오라고 할 수 있으니까(참여가족 C-아동).

예전 집은 그냥 컨테이너였으니까.. 길으로도 공사하는 곳이었고, 지금 집은 소중한 자리(참여가족 G-아동).

OO가 훨씬 더 밝아지고,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것도. 그 때는 한 번도 못 데리고 오니까 그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학교 생활하는 것도 훨씬 나아진 거 같아요. 지금도 집에 와서 얘기하는 것도 그

렇고.. 애깃거리가 거기하고 여기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참여가족 J-모).

어떤 물리적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아이가 자유로워졌고 더 아이다워진 것 같아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고.(참여가족 E-모).

⑥ 가족관계가 향상됨

주거환경의 개선은 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주거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가족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부모들은 집으로 인한 짜증이 줄어들면서 자녀에게도 좀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게 되어 가족 간의 갈등도 줄어들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짜증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집중력이 늘어나고, 스트레스로 인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들이 줄어들어 가족들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집의 공간이 넓어지고 각자의 방이 생기면서 오히려 가족이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안 일을 도와주는 등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의 질이 이전보다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단 우리는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이전에는 집도 좁고 답답하고 사는 게 힘들니까 애한테 (이혼한)아빠한테 가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어요. 지금은 애들이랑 저랑 셋이 나름 재미있어요. (참여가족 C-모).

아무래도 이사 온 후에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랑 아이랑 둘만 있을 때는 핸드폰만 보고, 게임만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은 얘기를 많이 하죠 (참여가족 J-모).

옛날에는 엄마가 맨날 짜증내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이도 좋아지고 얘기도 많아지고 좋아졌어요 (참여가족 H-아동).

전에 살 던 집에서는 (애 엄마가) 우울증이 와서 애도 안 봤어요. 애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지금은 챙겨주고 그러니까 엄마를 많이 따라요. 지금은 주거가 안정 되면서 집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걱정이 하나 줄어드니까 밝아지는 것 같아요 (참여가족 M-부).

옛날에는 바깥에서 아빠 도와드릴 때 보일려고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추워서 도와드리기도 싫었는데, 지금은 집안 일 도와드리는 것도 좋아요 (참여가족 L-아동).

⑦ 자신 있는 교우관계를 형성함

주거개선이 아동의 삶에 주는 변화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변화는 교우관계가 이전

보다 향상되었다는 점이였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아동들이 정체성의 하나로 인식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비좁은 경우, 친구들에게 집을 공개하기를 꺼려했다. 주거가 개선되기 이전에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거나 집을 보여주는 일이 어렵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주거개선 이후 아동들은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집으로 초대하는 일도 생기면서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리고 관계도 좋아지고 있었다.

전에 살던 집에 친구들이 온 적은 있는데 집이 좁아서 조금만 있다가 갔어요.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할머니가 담배 피시니까 예전 집이) 담배 냄새 많이 난다고 했는데 이사 온 집에 오더니 집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했어요 (참여가족 A-아동).

이사 와서 처음으로 생일파티도 집에서 했는데 좋았어요. 집이 넓어지니까 애들을 초대할 수 있고, 먼저 (친구들한테 집에 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참여가족 J-아동).

집이 바뀌기 전에는 다 무너져있고 그랬잖아요. 친구하고 만약에 놀게 되면, 친구가 집에 놀러오게 되잖아요. 놀러오면 우리 집 환경 때문에 애들이 또 싫어할 거 같아서 그것 때문에 초대를 안 하고 친구들하고 많이 안 놀았어요. 근데 (이사 온 후) 친구도 점점 생기고 집에도 놀러 오라고 얘기도 하고 (참여가족 L-아동).

⑧ 주거생활에 여유가 생김

주거 개선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가족생활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여유가 생겨 '내 집이 생겼다는 마음에 청소도 잘 하고', 자녀들도 '정리정돈 습관이 좋아졌으며', 예전에는 조리된 도시락으로 끼니를 떼우던 가족이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는 가족의 주거환경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동적인 변화들로 전체적인 주거생활에 있어 여유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사 후 생활비 부담이 조금 늘어난 가족들도 있었으나, 주거 개선 과정에서 연계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전기비와 도시가스 비용을 감면 받으면서 전반적으로는 주거관련 지출이 감소되어 경제적으로도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정말로 정리정돈 청소 다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죠. 이 집은 네 집이라고. 내가 너(아동) 때문에 당점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애가 하여튼 말도 잘해요(참여가족 B-모).

난방비나 전기세, 도시가스는 이사 오면서 차상위가 되면서 감면 받는 혜택을 받고 있어요 (참여

가족 C-모).

예전에는 복지관에서 나오는 도시락을 주로 먹고 엄마가 거의 집에서 요리를 못 했어요. 근데 이사 오고 나서 엄마가 요리를 많이 해요. 주방이 딱 봐도 조리하기 편해 보이니까 (참여가족 H-아동).

⑨ 외부환경 변화

주거 이전은 내부적 환경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 단지로 이사를 한 후 주변의 유해한 환경들이 사라지고 ‘밤늦게 다녀도 동네가 밝아 무섭지 않게’ 되었다. 또한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교통이 편해져서 다양한 외부활동들이 가능해졌고, 자녀는 학교와 훨씬 가까워져 통학하기가 수월해졌다.

전에 살던 동네는 좀 술집이 많았어요. 여기는 술집도 없고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거기서 친구들과 노니까 안심이 되죠 (참여가족 B-모).

학교 끝나면 갈 때 너무 무서워서 친구랑 전화통화하면서 갔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 다 건물이고 마트고 하나까 밝은 거예요. 그게 엄청 좋아진 거 같아요. (참여가족 C-아동).

(4) 주거지원 이후의 욕구

C 재단의 보증금 또는 주거환경 개보수 지원을 통해 연구 참여 가족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음을 연구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에게는 주거 빈곤과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욕구와 어려움이 있었다.

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빈곤과 삶의 문제들

주거 지원 이후의 문제는 보증금 지원을 받은 경우와 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조금 상이하였다. 보증금 지원을 통해 더 넓고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이사를 하여 주거빈곤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가족의 건강 문제, 해결되지 않은 부채의 압박,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경제상태 등으로 부모들은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있었다. 또는 급하게 구한 집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개보수 지원을 받았던 가정들은 가장 시급했던 문제들은 해결 하였으나 수리 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주거의 문제들이 있어서 주거개선의 효과가 오래 가지 못했다. 낡고 노후 된 집이기 때문에 집의 일부를 고쳤어도 다른 곳에서 또 문제가 나오고, 다시 곰팡이가 나타나고, 여전히 벌레들과 전쟁을 벌이며 스트레스를 받고, 좁은 공간의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와서 좋은데 아빠 병도 그냥 그러고 ○○도 지금 몸에 이상이 와서 계속 병원에 다니고 하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요.(참여가족 J-모).

이 집이 30년이 된 집이다 보니까 벽이 얇고 그러니까 단열도 안 되고 집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으면 못 살고 그런 게 있어요. (참여가족 B-모).

외벽 공사를 깨끗하게 해서 그렇지 뜯어보면 너무 썩은 데가 많아요. 이 집을 꼭 단아났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곰팡이 썩는 냄새 엄청나요 벌레 때문에 ...실지렁이도 잘 올라와요.(참여가족 I-조모).

② 정부의 주거지원에 대한 바램

아동주거빈곤층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무엇이 있기를 바라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참여자들은 LH 주거지원 대상자가 되었어도 보증금과 이사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해야 하고, 일반 전·월세 주택으로의 이주 또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이주를 포기한 경험들을 이야기 하였다. 이후 C재단과 연결되어 LH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이사비용은 부담이었다고 하면서 주거빈곤 가정을 위한 보증금 지원과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정부의 전세임대 지원과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탈수급 또는 지원자격을 박탈 당하면 대책이 없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저소득 가족을 위한 유예기간이나 특별 지원정책 등이 마련되어 저소득 가정의 주거빈곤 문제가 안정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LH는 초기 자금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임대보증금, 이사 비용, 복비, 새로 사야 하는 가구들) 그거 까지 다 합치면 한 1,000만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돈이 모이지가 않죠. 2016년도에 LH 신청해 보라고 했는데 자신 없다고 했어요. 보증금이랑 이사비용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참여가족 L-부).

(자가지지만 과밀하고 지하층인 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전환하여) 전세임대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는 나중에 애가 크면 수급자격이 없어 질까봐. 없어진다면 저는 아무 대책이 안 서지거든요. 아무 대책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가족 D-모).

③ 이주하고 싶은 집의 모습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앞으로 살고 싶은 집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다음과 같은 집의 모습들을 설명하였다. ‘퇴거 위험이 없고 쾌적하고 안정된 집’, ‘나만의 방을 가질 수 있는 집’, ‘월세를 안 낼 수 있는 집’,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집’ 등 안정된 주거가 보장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거유형을 선호하였다. 여전히 자녀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과 방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C재단의 주거 개보수 또는 보증금 지원을 받아 주거 상황이 개선된 아동가족의 경험을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거 개선 이전의 상황과 주거 개선 과정, 주거개선 변화의 3가지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각 주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아동의 주거가 개선되기 이전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주거환경’이었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위협이 되는 집’이었으며 ‘주거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 하였다. 또한 가족들은 주거빈곤 자체의 어려움 외에도 경제적인 욕구와 그 밖의 미해결된 문제들로 인해 주거빈곤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현상들이 있었다.

둘째, 열악한 주거환경과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아동의 부모들은 주민센터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를 만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C재단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

셋째, 주거개선 지원 후 주거환경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아동들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토피와 같은 질병들이 사라지면서 신체적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였다. 우울하거나 폭력적이었던 아동의 심리상태가 편안하고 안정되면서 자녀의 성장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거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가족들의 짜증과 갈등이 줄어들면서 가족 관계가 향상되고, 아동들은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등 교우 관계도 자신감을 가지면서 또래관계가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의 향상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참여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빈곤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주거와 관련해서 정부의 보다 다양하고 꾸준한 지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첫째, 주거개선으로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삶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여

러 측면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거개선의 효과성과 이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비록 2019년 4월 주거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아동복지법상의 지원대상아동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명시하고, 2019년 7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⁴⁾ 대상에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사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를 포함하였으나, 향후 이러한 변화가 실효성을 갖추어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규모를 줄이고 실질적 주거개선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가구의 경우 과밀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액 산정시 아동 수를 배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때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최소 보증금뿐만 아니라 이사비용도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C재단의 보증금 지원 혹은 주거개보수 지원을 받은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 가구는 개별적으로 노력하여 C재단과 연계된 경우이다. 그렇지 않은 가구의 경우 지속적인 주거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즉 모든 아동의 주거권이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가구의 노력 혹은 민간의 자선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거빈곤의 문제는 비용이 많이 요구되어 다른 빈곤의 영역보다 민간의 자선에 의지해서 해결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LH 전세임대주택이라는 공적 제도, 즉 개별 가구의 부담은 전체 전세금의 5%에 불과하도록 한 주거복지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약 500만원의 민간재단의 지원으로 9천만원의 전세로 이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전체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가인 아동주거빈곤가구가 최저주거기준미달 상황에 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는 주거 개보수로 해주고 있으나 주거개보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으며, 본 연구는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개보수의 효과가 제한점임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모든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을 아동가구의 입장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동주거빈곤가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선제적으로 찾고 주거지원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주거지원 과정과 주거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주거지원 과정에서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은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하여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이동을 돕는 사업이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의 대상은 무주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이어야 하며, 무보증금 월세 지원은 주거급여 대상자 즉 중위소득 44% 미만인면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주거 탐색과 개보수와 관련된 임대인과의 협약 등을 돕는 충분한 지원이 없으면 여전히 곰팡이 등 습기가 있는 부적절한 주거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었다.⁵⁾ 또 질병이 있거나, 주거개선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속되는 경제적 불안정은 주거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복합적 문제를 가진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경우 주거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이 보장될 것이다.

본 연구는 주거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보여 준 기존의 연구를 넘어서 주거개선으로 아동가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주거지원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아동가구의 살아있는 말로 전체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심층면접에 동의할 때는 주거지원의 긍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선택편의가 있을 수 있다. 요컨대 주거지원이 있었으나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는 심층면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주거개보수 사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대주제에서 주거개보수 사례와 보증금 지원을 통한 이사의 사례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 주거 개선 이전의 상황은 회상적 진술에 의지하였다. 주거지원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도 연구분석 과정에서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는 모두 후속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5) 본 연구참여자들 중 한 사례는 LH 전세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였으나 곰팡이 등이 심하여 C재단의 개보수 지원을 받았다. 새로 도배와 장판을 한 후 집주인이 매매하겠다고 이사를 요구하여 개보수 된 LH 전세 임대주택을 나와 인근에서 다른 LH전세임대를 구하였다.

■ 참고문헌 ■

- 강지영(2017). 양육자가 인지한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과 유형별 아동학대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37(2). 41-71.
- 강희경, 유병선(2014). 노인빈곤가구의 공공임대주택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와 민간주택 거주자 주거만족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경영연구. 1(2). 65-89.
- 권치홍, 김주영(2012).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0(3). 34-47.
- 김진희, 이상록(2012). 빈곤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이웃환경,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4(2). 365-387.
- 국토교통부.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신다은(2012). 빈곤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부 및 가족갈등과 부정적 양육 행동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봉주, 임세희(2008). 아동의 주거상태와 아동발달. 제1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363-381.
- 임세희, 이봉주(2009). 최저기준미달주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0(3). 243-265.
- 임세희(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임세희(2013).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4(4). 5-30.
- 임세희(2015).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결정요인: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2(4). 47-73.
- 임세희, 김선숙(2016).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6. 133-164.
- 임세희(2018).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 차이, 한국사회정책. 25(3). 75-101.
- 임세희, 최은영, 김희주, 김기태(2018).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임재현(2011). 주거빈곤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1). 279-304.
- 정용문(2012). 주택 및 주거서비스. 정기혜·김용하·이지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호주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진미윤(2011).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임대주택 시스템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국토연구. 87-113.
- 조소영(2012). 주택 및 주거서비스. 정기혜·김용하·이지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200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전통.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 서울: 학지사.
- 최연혁(2012). 주택 및 주거서비스. 정기혜·김용하·이지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스웨덴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용선, 이용모(2015).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효과성 분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3). 313-339.
- 최은희, 이종권, 김수진(2011).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개선효과: 주거비 부담 수준 비교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19(3). 123-147.
- 하성규, 서종녀(2006).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배제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4(3). 159-181.

- 한국도시연구소(2019). 시흥 정왕지역 아동주거 실태조사 . 정왕지역 아동주거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 Baker, M., McNicholas, A., Garrret, N., Jones, N., Stewart, J., Koberstein, V., & Lennon, D. (2000). Household crowding a major risk factor for epidemic meningococcal disease in Auckland children. *Paediatric Infectious Disease Journal*. 19(10) 983-990.
- Booth, A. & Edwards, J.N. (1976). Crowding and Family Rel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2),308-321.
- Clari, A.(2019). Housing: an Under-Explored Influence on Children's Well-Being and Becoming. *Children Indicators Research*. 12(2). 609-626.
- Conley,D.(2001).A Room with a View or a Room of One's Own? Housing and Social Stratification. *Sociological Forum*. 16(2). 263-280.
- Cres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 London: Sage.
- Curl, A., Kearns, A., Mason, P., Egan, M., Tannahill, C., & Ellaway, A.(2015). Physical and mental health outcomes following housing improvements: evidence from the GoWell Stud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9(1). 12-19.
- Egan, M., Katikireddi, S.V., Kearns, A., Tannahill, C., Kalacs, M., & Bond, L.(2013). Health Effects of Neighborhood Demolition and Housing Improvement: A Prospective Controlled Study of 2 Natural Experiments in Urban Renewal.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3(6). 47-55.
- Egan, M., Lawson, L., Kearns, A., Conway, E., & Neary, J.(2015). Neighborhood Demolition, relocation and health. A qualitative longitudinal study of housing-led urban regeneration in Glasgow, UK. *Health & Place*. 33. 101-108.
- Evans, G.W., Lepore, S.T.,Shejwal, B.R. & Palsane, M.N.(1998). Chronic Residential Crowding and Children's Well-be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9(9). 1514-1523.
- Evans, G.W., Rhee, E., Forbes, C., Allen,K.M. & Lepore, S.J. (2000). The meaning and efficacy of social withdrawal as a strategy for coping with chronic crowd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0. 335-342.
- Evans. G.W.. H. Saltzman & Cooperman. J.L.(2001). Housing Quality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Health. *Environment and Behavior*. 33. 389-399.
- Evans. G.W.. Ricciuti. H.N.. Hope. S.. Schoon. I.. Bradley. R.H.. Corwyn. R.F.. & Hazan. C. (2009). Crowding and Child Cognitive Development-The Mediating Role of Maternal Responsiveness Among 36-Month-Old Children. *Environmental and Behavior*. 20(5). 1-14.
- Harker,Lr. (2006).Chance of a lifetime-the impact of bad housing on children's lives. <http://image.guardian.co.uk/sys-files/Society/documents/>.
- Haffner, M., Hoekstra, J., Oxley, M., and Heijden. H (2009). Bridging the gap between social and market rented housing in six European countries? *Housing and Urban Policy Studies*. 33. IOS press.
- Masten, A. S., Miliotis, D., Graham-Bermann, S. A., Ramirez, M., & Neemann, J. (1993). Children in homeless families: Risks to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2). 335-343.
- San Francisco DPH(Department of Public Health) (2004). Unaffordable housing: the costs to public health. *Urban Environments and Health*.

Reynolds, L. & Robinson, N.(2005). Full house? how overcrowded housing affects families. Shelters.

Thomson, H., Thomas, S., Sellstrom E. & Petticrew M.(2013). Housing improvements for health and associated socio-economic outcomes. The Cochrane Library. Cochrane Public Health Group. Issue 3.

UN habitat. (2015).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act sheet* no. 21/rev.

마이홈 포털. <http://www.myhome.go.kr>. 2019년 5월 1일 검색.

◀ Abstract ▶

The change in quality of life after housing support of children's housing poverty households

Se-Hee Lim* & HeeJoo Kim**

This study examined experiences of households with children after their poor housing conditions had been improved by house refurbishment support or financial support for a deposit by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efore the improvement of housing, participants had to live in homes that were extremely poor and threatened their safety and healthy life. Second, while parents suffered from severe housing deprivation, they actively tried to contact community center official and social workers to ask for help. Third, as a result of improved housing, children could get their own room for the first time, and their physical health has been improved such as disappearance of atopy. Also, children who had been depressed or violent could have more relaxed and stable psychological conditions. Family relations has improved as irritations and conflicts among family members decreased, and children also became more positive and active to build friendships, such as inviting friends to their own houses. Last, despite improvement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participants still had unresolved poverty problems, and unmet needs for housing support services. These results support the need of housing support particularly for families with children.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more effectiv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in housing deprivation.

Keywords: housing poverty, effects of housing improvement, housing welfare, housing poverty of children

◆ 2019. 7. 31. 접수 / 2019. 9. 8. 1차수정 / 2019. 9. 10. 게재확정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Cyber University(shlim32@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yupsung University
(pennee@naver.com)